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시 2:1-4, 10-12)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유토피아(Utopia)’는 그리스어 ‘우(ού, 아니다)’와 ‘토포스(τόπος, 장소)’의 합성어로서 토머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에 의해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어디에도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식과 물질과 노력과 권력과 힘으로 멋진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쓰면 힘쓸수록 디스토피아(Dystopia)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 시장이 디스토피아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세계적인 혼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사 5:24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 하였음이라

시 107:10-11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금 대한민국은 ‘디스토피아’의 어두움이 우리 모두를 덮고 있습니다.

지난해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가 612,35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10만 명당 한국 31.2명, 일본 19.7명, 미국 10.5명, 이탈리아 4.9명, 그리스 2.8명).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자살공화국이 되었습니까? 자살시도자가 11만 명, 우울증 환자가 260만 명, 정신질환자가 300만 명, 가정 붕괴, 청소년 범죄, 탈선, 욕, 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인터넷 게임 중독 등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가져왔으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무시하는 불신앙으로 모든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한 가지 문제로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영적 병에 걸리고 수만 가지 사회적인 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병이 육신의 병이 되고 불행의 병이 되며,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자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병은 치료할 약이 없고 수습할 길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물질이나 권력이나 과학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욘 1:13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 눅 15: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 렘 5:25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화되고, 안정되고,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도 세상에 없던 유토피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찾아와 유토피아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the Kingdom of Heaven)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스토피아가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 시 68: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 겔 34:26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 시 107:29-30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데도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데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개인이나 국가나 왕이나 백성이나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과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평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잘 믿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도 잘 믿은 사람은 다윗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잘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울 때는 100% 잘 믿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면 1/100도 잘 믿기 어렵습니다.

1.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수습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삼상 31:1-6). 정치·경제적 위기,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는 절망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나라를 이어받아 나라를 회복하였습니다.

2.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살롬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 삼하 5:10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 삼하 8:6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 삼하 22:40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3. 나라가 무한하게 발전하여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상 11:9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대상 14:2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앎이었더라

4. 개인적으로는 비천한 데서 왕이 되어 모든 부귀, 영광, 권력, 존귀, 행복, 장수, 건강을 누리며 심히 복되게 살게 되었습니다.

대상 29:28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삼하 7:9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모든 힘과 능력과 축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만대를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왕상 15:4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삼하 7: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대상 29: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과 영광의 모델,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다윗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행 13:21-22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대하 17:3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왕하 22:2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축복의 원인은 오직 하나,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배, 기도, 말씀, 성전 등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을 이렇게 기뻐하였습니다.

대상 29:9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대상 15:28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 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대상 28:9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사울은 세상적이요, 인간적이었습니다. 국가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대상 10:13-14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사울의 길로 가는 사람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즐기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하지만,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인간적으로는 노예 신분으로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에 좋은 의복을 입고, 편하게 놀고, 대접을 받고, 특별 휴가도 얻고, 즐기기도 하고, 높은 분의 부인에게 돈도 받고, 사랑도 받고, 집도 하나 얻고, 보물도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들켜서 사형을 받았을 것이고, 총리도 못 되고, 부모도 만나지 못하고, 가정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10가지가 다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셔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즐겨서도 안 됩니다.